

현장 보고

## 에스토니아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교육, 연구

: 국립 타르투대학교 (University of Tartu)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 I. 들어가며: 에스토니아, 그리고 남북관계

에스토니아는 한반도와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끝에 위치한 인구 약 130만 명, 남한 절반 면적의 유럽연합(EU) 국가다. 이 작고 먼 나라 에스토니아는 남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에스토니아와 한반도는 근현대사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기도 했지만, 주권을 잃고 독립을 향해 평화 운동, 무장항쟁, 임시정부 수립 등 비슷한 여정을 걸었다. 또, 1991년 소비에트에서 재독립후 정치, 경제, 교육 등에서 빠르고도 안정적 체제 전환을 이뤘다고 여겨진다. 특히, 에스토니아는 IT를 중심으로 경제 혁신과 발전을 지향해왔다. 이로써 2019년 세계 68개국 중 디지털 라이프 부문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sup>1)</sup>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3.1.202106.385>

<sup>1)</sup> *Internations*, “The Best and Worst Countries for Digital Life Abroad”, 28 May 2019  
(<https://www.internations.org/press/press-release/the-best-and-worst-countries-for->

유닛'(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에스토니아는 2020년 27위로 올라섰다. 유럽 내 구사회주의권 국가 중 가장 앞선 순위다.<sup>2)</sup> 교육부문 세계 지표에도 상위권에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학력평가 지표인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sup>3)</sup>에서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앞선 순위로 올라섰고 세계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발전 뒷면에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사이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두 나라는 유럽 내에서 유일한 피닉(Finnic) 어족으로 남다른 유대감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시기부터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왔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체제전환과 발전에 주요 버팀목으로 여겨지며, 양국은 마치 저 멀리 있는 또 하나의 남북한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기에 에스토니아가 걸어온 역사, 체제전환, 핀란드와의 교류, 협력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어떤 단초를 주지 않을까? 이 질문과 함께 본 글은 에스토니아 국립대학교인 타르투대학교(University of Tartu)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교육 내용, 교내외 학생 및 교수 활동,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탐색한다.

---

digital-life-abroad-39815).

2)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 리투아니아 36위, 라트비아 38위, 러시아 134위였다. *Estonianworld*, "Estonia's democracy score slightly declines; falls behind the US", January 26, 2020.

3) Republic of Estonia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PISA 2018: Estonia ranks first in Europe", 3, December 2019, <https://www.hm.ee/en/news/pisa-2018-estonia-ranks-first-europe>

## II.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교육, 연구 배경

1632년도에 설립된 타르투대학교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 대학교다. 에스토니아가 스웨덴에 국권을 잃었을 당시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스 아돌프스(Gustavus Adolphus)가 설립한 이래 에스토니아를 대표하는 대학교로 자리잡으며 에스토니아 역사와 함께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20년 에스토니아가 첫 번째 독립을 맞기 직전 1919년에 타르투대학교는 비로소 자국어인 에스토니아어로 교육하는 국립대학교로 재탄생했다.

타르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이 정규 교과로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로 파악된다.<sup>4)</sup> 에스토니아와 남한이 수교를 맺은 1991년으로부터 20년이 더 지나서다. 그 후 현재 2021년 봄학기에 이르기까지 매 학기 4개 과목(18 ECTS)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2021년 현재 타르투대학교 한국어, 한국학 총 교과목 수는 8개다. 이 중 한국학 교과목으로 한국 문학, 한국 사회와 문화, 한국 역사가 있고 나머지는 한국어 강좌다.

타르투대학교 내 한국학 교과목 중 ‘남북관계’를 이름으로 한 과목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한국학 교과 내용은 남한과 북한 모두 아우른다. 남북한 비교,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이 구성은 학생들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내 전반적 관심을 반영한다. 에스토니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특히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 이래 꾸준히 계속됐다. 에스

4) 타르투대학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는 Faculty of Arts and Humanities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 Department of Languages of the Asian Region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위 아시아지역 언어과(Department of Languages of the Asian Region) 내에 포함돼 있다. 타르투대학교 외국 언어와 문화 대학 아시아언어과, <<https://www.maailmakeeled.ut.ee/en/about-us/contacts-3>>.

토니아를 넘어 유엔, 유럽연합 등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며, 남북관계 현안 중 특히 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 의회 주요 인사들을 통해 북한의 도발, 한반도 갈등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는 주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해외 정보 담당 기관인 에스토니아 대외 정보 서비스(Eston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EFIS)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 안보와 에스토니아(International Security and Estonia)” 보고서와 에스토니아 외교, 안보 및 국방 부문 국책 연구소인 국방안보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 ICDS)<sup>5)</sup> 발간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두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 발간물을 분석하면 에스토니아가 남북관계에 비중을 두는 데 무엇보다 북한, 러시아, 중국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에스토니아 국가 안보에 역사상 가장 위협국인 러시아, 그리고 최근 세계 안보에 위기를 고조한다며 에스토니아가 주요 경계 대상으로 보는 중국, 이 두 나라 모두와 북한이 공조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EFIS 발간 연례 보고서 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계속된다(North Korea’s Weapon Programme Continues).”<sup>6)</sup> 제하로 보다 구체화된 바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과 그 분야는 타르투대학교 학생들에게서도 파악된다. 매 학기 초 학생 수요조사, 학기 말 강의평가, 학생 발표 주제 선정 등을 통해서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학생 수요를 반영해 구성한 남북관계 주제 교과 내용 예시, 교내외 학생, 교원 발표, 특강 주제 및 내용을 소개한다.

5)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ICDS), <<https://icds.ee/en/>>.

6) EstonianForeignIntelligenceService, “North Korea’s Weapon Programme Continues”, *International Security and Estonia* 2018, pp. 61-65.

### Ⅲ. 타르투대학교 정규 교과목 내 남북관계 교육

우선 한국 문학 과목에 남북관계 교육 내용을 보면,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두 시인의 시가 소개되고 있다. 즉, 조지훈 시인(1920-1968)의 “다부원에서”, 유치환 시인(1908-1967) 작 “보병과 더불어”다. 이 두 시의 배경으로 한국 전쟁에서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되는 1950년 다부동, 온정리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쟁 이후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는 두 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공간 배경으로 다뤄진다. 특히 학생들과 토론을 위해 전쟁을 상징하는 시어를 찾고 시를 통해 한국 전쟁과 남북한 분단에 대해 재구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외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오늘날 남북한 사람들 모두의 영웅 소설로 어떻게 각각 재연되고 있는지 다뤘다. 구체적으로 남한의 홍길동전과 북한 사회과학원 발간 조선전사(朝鮮全史, 1992-1972)에 실린 홍길동전, 영화 홍길동(1986) 내용 전개와 등장인물을 비교했다. 남북한 홍길동전 내용 차이 뒷면 대내외 정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북한 분단과 체제 차이, 사회주의권 붕괴, 북한 영화 홍길동 감독 둘 중 한 명인 신상옥 남북과 당시 남북한 관계를 조명했다.

또 남북한 문학교류 예로써 조선시대 기생이자 시인, 예술가였던 황진이가 북한 홍석중 작가, 남한 전경린 작가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되고 묘사되고 있는지 두 소설 내용을 비교했다. 북한 홍석중 작가 소설을 원작으로 남한에서 2007년 개봉한 영화 황진이를 소개하며, 허구 인물인 ‘눔이’의 등장과 내용 전개에서 비교 관점으로 남북한 소설 황진이에 대해 이해했다.

한국전쟁과 문학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전쟁 난민, 이산가족, 이념

갈등, 분단, 전쟁과 일상 등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박완서 작 ‘엄마의 말뚝 2’(1981), 최인훈 작 ‘광장’(1960)에 대한 내용 분석이 있었다. 최인훈 소설 ‘광장’ 주인공이 남한, 북한, 모스크바 등으로 이동하며 각 공간에서 경험하는 이념 갈등을 고찰하며 한 개인을 통해 당시 전쟁 직후 분단 상황을 파악했다.

또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비극이 그 이후 개인, 가족의 삶에 어떻게 켜켜이 배어가는지 박완서 소설 『엄마의 말뚝 2』를 통해 살펴봤다. 특히 전쟁의 비극과 모성애(maternal love)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재연되는지 다른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모성과 비교했다.

한국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는 남북한 지리 및 지형과 관련해 비무장지대,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정치 개념과 더불어 백두산을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시각 등이 다뤄졌다. 또 한반도 분단 이래 이산가족, 남한과 제3국 북한이탈주민의 삶, 남북한 언어 차이 배경과 현황, 남북한의 정치체제, 군 복무 의무제와 남북한 사회문화, 남북한 미디어 현황, 북한 내 한류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남북한 언어와 관련해 분단 이후 남북한 언어 차이(the growing language divide)가 나타난 배경으로 남북관계, 남북한 각기 주요 외교관계, 정치경제 체제, 사회문화, 표준어 정의, 역사 해석 차이 등을 제시하고, 남북한 어휘 차이 예시를 살폈다. 뜻은 같지만 표현이 크게 달라진 단어, 같은 뜻이지만 표기를 달리하는 단어, 한자어를 남북한이 달리 읽는 경우 등 남북한 어휘를 직접 비교해 보는 시간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 교류와 통합과정에서 언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 동서독 통일 등 주변 사례와 비교, 토론했다. 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 현황, 언어로 인해 취업,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고찰했다.

한국 역사 과목에서는 남북한 설날 역사와 관습 비교부터 시작해, 남

북한의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 시기 구분과 서술(historiography)을 다뤘다. 남북한의 역사관, 역사서술 비교를 위해 북한의 주체사상(the Juche paradigm of historiography)과 조선전사(Complete History of Korea, 1979- 1992)의 역사서술이 포함됐다. 또한 개천절 유래와 남북한 역사학계의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 차이, 그리고 그 차이의 배경에 대해 강의했다. 그 외 남북한의 독립 운동 역사 서술(남한 삼일운동(1919), 북한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1926)), 남북한 분단과 문화 유산 편재, 종교 역사와 남북한 종교, 한국전쟁과 분단, 남북한 근현대사 전개 등이 교과 내용에 있다.

#### IV. 교내외 남북관계 세미나 및 특강

타르투대학교 정규 교과목 외에도 학생 주도(student-led learning), 실천 학습(experience-based learning)을 위해 2016년 여름부터 타르투대학교 한국문화클럽(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sup>7)</sup> 활동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한 특강, 세미나, 웨비나 등이 매 학기 있었다. 한국어, 한국 문화와 관련한 활동 외에도 매 학기마다 학생,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학 세미나, 특강도 이어졌다.

세미나, 특강 주제와 내용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 분야를 읽을 수 있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몇 가지 예시로 우선 2019년 11월 있었던 세미나에서는 한 세션 주제를 “남북한 사람들이 분단 이후 걸어

<sup>7)</sup>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http://www.maailmakeeled.ut.ee/et/koreancultureclub>>; <<https://www.facebook.com/groups/149698222119946/>>.

온 길(North and South Koreans in Long Journey of Division)”로 했다. 타르투대학교 학부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은 각각 “자유로 가는 여정; 어느 탈북민의 이야기(Journey to Freedom: North Korean Defectors”, “양심적 병역 거부: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A Country Still at War)”을 주제<sup>8)</sup>로 발표했다.

첫 발표에서는 탈북 배경, 탈북 후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여정, 남한 내 탈북자 생활 등을 포함했다. 또 두 번째 발표에서는 남북한의 의무 군복무 소개와 배경, 남한 내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이로써 한국 전쟁 후 계속되는 남북한 대치와 사회현상을 그렸다.

또, 2020년 10월 가을학기 웨비나(Webinar)에서 타르투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저널리스트 메릴리 루크(Merili Luuk)는 “나의 특별한 여행기: 평화주의 투어리즘”을 주제<sup>9)</sup>로 두 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더 주목받는 ‘평화주의 투어리즘’<sup>10)</sup> 개념에 기반해 한국으로의 여행을 새롭게 해석, 관심을 끌었다. 남한 내 비무장 지대(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여행과 더불어 대북 라디오 방송국 방문기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평화 지향 여행 개념을 구체화했다.

에스토니아 현지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특강 프로그램도 있었

8) Liisa Jaakson, 「Journey to Freedom: North Korean Defectors」, Anni Arukask,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A Country Still at War」 『Session 2 North and South Koreans in Long Journey of Division』,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5th Seminar (22 November, 2019).

9) Merili Luuk, 「My Exclusive Travelogue in S.Korea: Peace Tourism」,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4<sup>th</sup> Webinar (16 October, 2020).

10) Cordula Wohlmuther, Werner Wintersteine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Peace and Tourism*, Center for Peac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Klagenfurt University, Austria in cooperation with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Drava, 2013, pp. 62-77.

다. 에스토니아 주요 사회 교육기관인 바바아카데미(Vabaacademia)와 타르투대학교 한국문화클럽(UT Korean Culture Club) 공동 주관으로 2018년 가을학기, 2019년 봄학기 연속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특강을 24회 제공했다. 총 3명의 강사가 담당했는데, 수강생은 타르투대학교 학부, 석박사 과정생뿐 아니라 교수, 중고등학생, 직장인 등 모두에게 열렸다.

24개 강좌 중 두 강사가 “홍길동, 남북한의 영웅”, “남북관계와 병역의무”, “북한에 부는 한류의 바람”을 제목으로 문학, 문화, 군사 등 분야를 넓혀 남북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홍길동, 남북한의 영웅” 주제 강의는 홍길동이 조선 시대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로 탄생한 이래 남북한 각각 현대사를 지나며 어떻게 소설, 영화, 드라마 등으로 그 내용, 형식을 달리해 재창조됐는가를 다뤘다. 그리고 홍길동전이 ‘전우치전’처럼 남한에서만 다시 등장하지 않고, 왜 남북한 모두에서 현재까지 주목받았는지 비교했다.

“남북관계와 병역의무” 강의에서는 남북한 분단 이래 군비 증강과 군사적 대치 상황, 의무 군복무제 등을 다루고, 더 나아가 이러한 남북한 긴장 상황이 각각 사회문화에 어떻게 드리워지고 있는가 생각했다. “북한에 부는 한류의 바람” 주제 강의는 북한 내 남한의 TV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이 확산되는 과정, 유통망 등과 함께 한류와 북한 주민의 의식 및 생활 변화, 남북한 통합에 대중매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몇 가지 미디어 이론과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시야를 넓혔다.<sup>11)</sup>

11) Park Jung Ran, 「Hong Gil-dong, a hero of South and North Koreans」, 「South Korea's pop-culture in North Korea: Korean Wave, a wind blowing for reunification」, Roland Schimanski, 「Inter-Korean relations and mandatory military service」 『Joint Classes of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and VABA AKADEEMIA on Korean Culture』 (September 26-December 12, 2018, February 27-May 15, 2019), <<http://www.vabaakadeemia.ee/uudised/algavad-korea-kultuuri>

타르투대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세 나라를 중심으로 결성한 발트 아시아학 연합(Baltic Alliance for Asian Studies), 발트 한국학회(BAKS, the Baltic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주관 컨퍼런스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한 발표가 두 차례 있었다. 즉, 2016년과 2020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각각 발표한 “에스토니아인의 핀란드 TV 시청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북한 내 남한 대중문화 전파 경로와 전망”, “북한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과 하위문화 형성”<sup>12)</sup>이다.

둘 중 발트 한국학회 발표 내용을 보면, 분단 이래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과정을 시기에 따라 라디오, 대북 확산기 방송, 영상매체 등으로 분류해 각각 제시했다. 특히, 2000년대 북한으로 남한의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이 확산되는 배경을 다층적 대내외 환경(Multi-layered Environment Changes)으로 개념화했다. 즉, 남한 미디어 산업의 성장, 남한과 중국 간 수교와 양국 간 대중문화교류, 중국 경제성장과 중국산 소형 매체, 저가 메모리 디바이스의 북한 내 유입,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심화, 북한 내 시장화 확산, 남한 및 해외 민간단체 대북 지원 등이 그것이다.

---

le-ja-uhiskonnale-puhendatud-loengud?fbclid=IwAR1VXRLYLjb-ighgDWKKnYdO0orbDZSL7OvVeK1bUTcV1y-MBL6w\_4kPQBA).

<sup>12)</sup> Park Jung Ran, 「South Korean Pop Culture Flowing to North Koreans: Paths and forward-looking discourse from the Soviet Estonians watching Finnish TV」 『Spiritual Context of Baltic Korean Studies』, The Second Online Conference of the Baltic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Latvia (LU), Riga, Latvia (26-27 November 2020); Park Jungran, 「North Korean Residents' Viewing of South Korean Video Productions: The Creation and Implications of “Subculture”」, 2nd the Baltic Alliance for Asian Studies (BAAS) conference in University of Tartu, Tartu, Estonia (2016).

## V. 남북관계 연구 사례: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인의 핀란드 TV 시청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타르투대학교에 한국학 교과목이 개설된 외국 언어와 문화 대학 교원 및 연구자에 의해 남북관계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9년도 학술프로젝트가 처음이다. 에스토니아 연구자 정보망인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System)에 의하면 타르투대학교 외국 언어와 문화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는 총 26건이다. 이 중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인의 핀란드 TV 시청: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sup>13)</sup>를 제목으로 2019년-2020년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국학 연구로도 첫 시도였다. 한국의 통일과 나눔 재단(The Unikorea Foundation)의 해외 학술연구 지원 공모 신청 후 지원 결정으로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20년 봄학기 초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학, 사회학,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해 다학제 접근을 추구했다. 연구참여자로는 북한학 전공자 본인이 책임이었고 공동연구자로 타르투대학교 비교 문학(comparative literature) 교수, 타르투대학교 출신으로 현재 일본 도호쿠대학교(東北大学) 소속 사회학 연구자가 참여했다. 또 교내 직원들이 연구 수행을 위해 행정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언론인이 연구보조원으로서 에스토니아인 20명과의 심층면담 진행을 담당했다.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은 소비에트 시기 핀란드 TV를 시청했던 에스

13) Jung Ran Park, Jüri Talvet, Roland Schimanski, *Western Media through Finnish TV in Soviet Estonia: implications for South-North relations*, Tartu; University of Tartu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academic research project (1 June, 2019–29 February, 2020) (<https://www.etis.ee/Portal/Projects/Display/9b1c87ef-d383-4f5e-a8df-47aa5d741ed4?lang=ENG>).

토니아인으로 한정하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구성을 고려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료, 스포츠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도록 했다.

본 연구프로젝트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매체 시청이 누적되면서 과연 분단된 한반도, 남북한 관계, 더 나아가 통합과정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소비에트 시기 에스토니아인들이 소비에트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방송매체, 즉, 핀란드 TV를 시청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탈린을 중심으로 한 에스토니아 북부지역의 에스토니아인들이 소비에트 시기에 핀란드 TV를 시청했고, 이 경험이 에스토니아가 1991년 독립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빠른 체제 전환과 성장을 이룬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기억은 에스토니아 내외부에서 사적, 공적담론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독립 직후 젊은 정치 엘리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혁신해 가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시기 핀란드 미디어를 통해 구축된 에스토니아 내부 사회적 합의가 안정적 체제 전환의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2004년 당시 에스토니아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헨드릭 일 베스(Toomas Hendrik Ilves)는 핀란드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즉, 핀란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부터 핀란드가 에스토니아를 서구로 인도하는 창이 되었다. 당시 소비에트 내에서 금기시된 폴란드 출신 반공산주의 인사인 레흐 바웬사(Lech Wałęsa)에 대해 알게 되고, 미처 알지 못했던 민주주의, 서구의 풍요로운 삶을 보게 된 것이 구체적 이유<sup>14)</sup>다.

14) Toomas Hendrik Ilves, *Some kind of Solution: Estonia, Finland and the Enlargement. No longer a poor cousin awed*; 박정란, 「남북 관계 전환과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 매체 시청: 소비에트-EU 에스토니아 사례로 본 전망」,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8), 355-379쪽 재인용.

이처럼 에스토니아인들의 소비에트 시기 핀란드 TV 시청과 그 역할에 대해 에스토니아 내부에서 공론화된 바 있고, 다큐멘터리 영화 “디스코와 핵전쟁(Disco and Atomic War)”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더 멀리 해외<sup>15)</sup>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에스토니아 사례를 북한과 남북관계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서 타르투대학교 연구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문헌분석을 통해 에스토니아인들의 핀란드 TV 시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와 북한의 자본주의 영상매체 시청 규모, 지역, 시청 후 의식변화 등을 비교했다. 나아가, 에스토니아의 1991년 재독립 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핀란드 TV 시청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출하고 북한 내 남한 미디어가 향후 어떠한 효과로 나타날지 논의를 발전시켰다.

## Ⅵ. 나가며

에스토니아의 경험은 남북관계를 내다보는 어떤 단초가 될까? 본 글을 시작했던 질문이다. 그 짧은 답을 위해 앞서 소개한 타르투대학교 수행 연구 프로젝트 내용 중 하나를 더한다. 본 연구프로젝트에서 에스토니아인 20명과 심층면담 후 분석한 소비에트 에스토니아인의 핀란드 TV 시청 장기 효과(long-term effects)가 그것이다. 이들은 소비에트 시기

15) 야크 킬미(Jaak Kilmi)가 감독한 2009년 에스토니아 영화로 원제목은 “Disko ja uumasõda” (2009)이다. Stephen Holden, “J. R. Ewing Shot Down Communism in Estonia ‘Disco and Atomic War’”, New York Times, 11 November, 2010, <<https://www.nytimes.com/2010/11/12/movies/12disco.html>>.

1970년대부터 1991년 재독립 이전까지 길게는 20여 년간 핀란드 TV를 시청했다. 유럽 내 에스토니아, 핀란드 두 나라만 유일한 피닉(Finic) 어족으로 핀란드 TV가 모스크바에서 온 것보다 이해하기 쉬웠다. 핀란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핀란드어에 더 능숙해졌다. 이는 대외적으로 에스토니아가 핀란드와 교역을 늘리며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필수 인적자본이 됐다. 핀란드에게도 이 인적자본은 에스토니아인을 통해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주변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넓히는 기회였다. 대내적으로 핀란드 TV 시청은 에스토니아인들이 독립 이후 발전상을 앞당겨 구체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동기,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되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반이 됐다.

이 에스토니아의 경험을 북한 내 남한 영상물 시청, 남북관계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sup>16)</sup> 다만, 핀란드 TV 시청 지역이 소비에트 에스토니아 북부 일부인데 비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이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고, TV로 한정된 에스토니아보다 북한 내 시청매체가 다양하다는 점. 이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한반도 미래에 더 넓게 펼쳐질 환경으로써 기대를 더한다.

16) 타르투대학교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북한 내 남한 영상물 확산 과정, 시청 형태, 내용, 의식 변화는 소비에트 시기 에스토니아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당국 통제 강도, 자본주의 경험과 의식 변화 정도 등에서 차이점도 있다.

**【참고문헌】**

- Eston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International Security and Estonia 2021*.
- Mickiewicz Ellen, *Split Signals: Television and Politics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Park Jung Ran, Talvet Jüri, Schimanski Roland, *Western Media through Finnish TV in Soviet Estonia: implications for South-North relations*, Tartu; University of Tartu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and Cultures, academic research project (1 June, 2019–29 February, 2020).
- Wohlmuther Cordula, Wintersteiner, eds, *International Handbook on Peace and Tourism*, Center for Peac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Klagenfurt University, Austria in cooperation with the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Drava, 2013, pp. 62-77.
- 박정란, 「남북 관계 전환과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 매체 시청: 소비에트-EU 에스토니아 사례로 본 전망」,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김정은 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8, 355~379쪽.
- Baltic Times*, “Estonian MP: Korean peninsula must become nuclear-free”, 18 November 2017.
- Baltic Times*, “North Korea film will not be shown in Estonia”, 26 December 2014.
- Erki Loigom, “What to Do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ICDS), 15 May, 2017.
- ERR*, “Estonian MEP Urmas Paet emphasizes need for sanctions on North Korea”, April 18, 2018,  
(<https://news.err.ee/822422/estonian-mep-paet-emphasizes-need-for-sanctions-on-north-korea>)
- Estonian World*, “A British think tank ranks Estonia’s prosperity 21st highest in the world (estonianworld.com)”, April 14, 2021,
- Estonian World*, “Estonia’s democracy score slightly declines; falls behind the US”, 26 January, 2020,

- (<https://estonianworld.com/life/estonias-democracy-score-slightly-declines-falls-behind-the-us/>).
- Hannes Hanso, "North Korea: why the world needs a ghoul", 11 April, 2013,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ICDS).
- Holden Stephen, "J. R. Ewing Shot Down Communism in Estonia, Movie Review, 'Disco and Atomic War'", *New York Times*, 11 November, 2010, (<https://www.nytimes.com/2010/11/12/movies/12disco.html>).
- Internations*, "The Best and Worst Countries for Digital Life Abroad", 28 May 2019, (<https://www.internations.org/press/press-release/the-best-and-worst-countries-for-digital-life-abroad-39815>).
- Jaakson Liisa, "Journey to Freedom: North Korean Defectors"; Arukask Anni,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South Korea, A Country Still at War"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5thSeminar;Session2NorthandSouthKoreansinLongJourneyofDivision,22November2019.
- International Centre for Defence and Security(ICDS), "The Unfolding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29 September, 2017.
- Internations, "The Best and Worst Countries for Digital Life Abroad", 28 May 2019, (<https://www.internations.org/press/press-release/the-best-and-worst-countries-for-digital-life-abroad-39815>).
- Luuk Merili, 「My Exclusive Travelogue in S,Korea : Peace Tourism」,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4thWebinar(16 October, 2020).
- Park Jung Ran, 「South Korean Pop Culture Flowing to North Koreans: Paths and forward-looking discourse from the Soviet Estonians watching Finnish TV」 『Spiritual Context of Baltic Korean Studies』, The Second Online Conference of the Baltic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Latvia (LU), Riga, Latvia (26-27 November 2020).
- Park Jung Ran, 「North Korean Residents' Viewing of South Korean Video Productions: The Creation and Implications of "Subculture"」, 2nd the Baltic Alliance for Asian Studies (BAAS) conference in University of Tartu, Tartu, Estonia (2016).
- Park Jung Ran, 「Hong Gil-dong, a hero of South and North Koreans」, 「South Korea's pop-culture in North Korea: Korean Wave, a wind blowing for reunification」, Schimanski Roland, 「Inter-Korean relations and mandatory military service」

『Joint Classes of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and VABA AKADEEMIA on Korean Culture』(September 26-December 12, 2018, February 27-May 15, 2019).

Pealinn, “Soul: Põhja- ja Lõuna-Korea piiril leidis aset tulevahetus”, 3 May, 2020.

Permanent mission of Estonia to the UN, “Joint Press Statement on DPRK by Belgium, Estonia, France, Poland and UK”, 31 March, 2020.

*Postimees*, “Estonia calls on North Korea to develop Its society, not create a nuclear weapon”, 26. February 2013.

Republic of Estonia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PISA 2018: Estonia ranks first in Europe”, 3. December 2019,

(<https://www.hm.ee/en/news/pisa-2018-estonia-ranks-first-europe>).

Statistics Estonia, (<https://data.stat.ee/profile/country/ee/?locale=en/>).

Statistics Finland, “Biggest import and export countries, 2020”

([https://www.stat.fi/tup/suoluk/suoluk\\_kotimaankauppa\\_en.html](https://www.stat.fi/tup/suoluk/suoluk_kotimaankauppa_en.html)).

Statistics Estonia, “GDP growth compared to the same period of previous year, 1st quarter 2005 – 3rdquarter 2020”, <https://www.stat.ee/en/node/4579>.

Visit Estonia, “Tallinn’s Song Festival Grounds”,

(<https://www.visitestonia.com/en/tallinns-song-festival-grounds-1>).

University of Tartu Korean Culture Club,

(<http://www.maailmakeeled.ut.ee/et/koreancultureclub>)

“Disko ja uumasõda”, 2009.

Välisministeerium, “Eesti on Põhja-Korea raketikatsetuse vastu, December 8, 2012.

**박정란(Park, Jung-Ran)** 

---

타르투대학교 Visiting Professor이며 The Baltic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부회장으로 있다. 이화여대 북한학박사를 받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Eurasian Natl. Univ. 한국학 방문교수로 있었다. 최근 타르투대 수행연구 “Western Media through Finnish TV in Soviet Estonia: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책임을 맡아 완료했다. 공저 『한류 통일의 바람』 등 다수가 있고, 북한 한류, 탈북과 남한 생활 주제 음악극 “스타트 스타터”, “아랫동네 날라리” 대본, 곡을 쓰고, dramaturg, 연출로서 공연했다.